

구례 산수유, 타이완 수출길 뚫었다

“연간 10~50톤 수출”... 농가 소득 기대

김순호 군수 “다각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구례군의 특산품 산수유가 타이완 수출길에 오른다. 구례군은 산동농협에서 김순호 군수와 허재근 산동농협 조합장, 송해경 농협은행 구례군지부 지부장, 산수유 재배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례 산수유 수출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수유는 공진단의 주원료이며, 중국에서 예로부터 최고로 치는 약재로 알려졌다. 구례는 전국 산수유의 85% 정도

를 생산하지만, 최근 급격한 영농비 상승과 중국산 저가 산수유의 유입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산동농협은 이에 따라 산수유 가격 안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판로를 찾던 중 타이완으로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구례 산수유는 지난달 21일 1.2분량을 처음 수출하는 선적 협의가 이뤄졌다. 이어 연간 10~50t을 타이완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 구례 산수유 수출 물량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물류비 등 다각적

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산수유 수출은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보성군 장학재단 장학생 550명 모집

(재)보성군장학재단은 오는 15일까지 2025년 상반기 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상반기 장학생 선발 분야와 인원은 성적 우수 95명, 미래인재 68명, 희망나래 16명, 보금자리 63명, 한울타리 35명 등 12개 분야 550명이다. 이들에게 4억277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친권자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타 지역 주소를 두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새싹기움 장학금(100명)이 신설됐다. 장학생 신청은 해당 학교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학금은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급한다. 보성군장학재단은 장학금 지원 이외에도 특기 적성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재능 개발에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올해는 재능기움 프로그램을 통해 5개 학교에 5000만원, 꿈기움 프로그램을 통해 2개 학교에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캠핑으로 그린 아일랜드' 순천, 12~13일 참여자 모집

순천시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그린 아일랜드와 오천 그린광장 분수대 일원에서 2025년 '캠핑으로 그린 아일랜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캠핑으로 그린 아일랜드' 행사에서는 벚꽃과 명망이 동반을 키워드로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총 90팀을 모집하며, 일반 참여자는 70팀, 반려견 동반 참여자는 20팀이다. 행사 전인 지난 1일부터는 동천변을 따라 핀 벚나무길(삼산동-오천지구)에서 벚꽃사진 콘테스트가 사진 이벤트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에는 봄에 어울리는 영화 상영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플라마켓 등이 열린다. 또한, 가족 단위 참여자를 위한 오천 그린광장 해설투어와 동천 곤충탐사도 마련된다. 반려견 프로그램은 반려견 어질리티 시연과 체험·반려견과 함께하는 워드 요가·반려견 패션쇼·반려견 mbti 검사 등이 있으며,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신청방법은 QR 코드 또는 구글 폼(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l9BPsliaExWHRWcpXCyYrSRJcChAOx6dRGtqXC9Yho_PHQ/)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핑 행사는 행사 참여자뿐 아니라 시민들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따뜻한 봄날 그린 아일랜드로 오셔서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만국가정원, 개장 90일만에 관람객 60만명 돌파

2022년 대비 한 달 앞당겨진 성과

순천만국가정원이 올해 개장 90일만에 누적 관람객 수 60만명을 돌파하며 정원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는 2022년 대비 29일 앞당겨진 기록으로 잘 가꿔진 순천만국가정원에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복용됨인 성공적 결과로 평가된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시민과 관람객이 자연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모두의 삶, 일상의 정원’을 선물하고 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순천만국가정원은 지역의 화훼농가와 계약재배로 꽃을 조달받고, 자체 육묘장을 활용한 튼튼 구근 식물을 직접 재배

로 운영비를 절감하며 지역일자리 450개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1등 공신 역할을 해 국가정원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다. 늘어나는 관람객 유치를 통해 웰니스 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으며 정원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 지역과 정원이 함께 성장하는 ‘공용의 틀’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2025년 순천만국가정원은 ‘Go 순천, Take 가든’이라는 글로벌 슬로건을 내세워 정원의 아름다움을 관람객에게 선물하는 차별화된 전략

을 추진하고 있다. 형형색색의 꽃과 나무로 펼쳐지는 색의 향연 컬러풀 가든과 시기별 감성적인 문화콘텐츠를 결합하여 더욱 젊어지고 다채로운 정원을 조성하며, 이를 킬러콘텐츠로 만들고 정원의 실시간 개화 상황 등 SNS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하여 2~30대와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공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원 워크닉, I(아이)-Week(위크), 가든 별칭 등 다양한 문화행사과 콘텐츠를 통해 정원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力)을 키워갈 것이다”고 밝혔다. /순천=조준익 기자

곡성,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모집... “기업 인력난 푼다”

외국인 인제 유입 ·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곡성군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 외국인 인재를 영입해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곡성군은 외국인 인재 유입과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서 취업 등의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비자(E-7-4R, F-2-R, F-4-R)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

4R)은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 외국인인 대상이며 배정 인원은 308(전남 22개 시·군 기준)명이다. 국내 체류 기간이 기존에는 비수도권 지역 3년, 수도권 4년 이상이었지만 2년으로 완화됐으며 4명까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또 지역특화형 비자(E-7-4R)를 발급받은 배우자는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근무처에서 최소 1년 이상 재직해야 하며 연봉 2600만원 이상, 기업

추천 등이 있어야 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인 곡성지역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춘 뒤 인구조직과(지방소멸대응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인구 유출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농공단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비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지역 정착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곡성=홍경백 기자

광양, 2분기 도약 위한 ‘4월 정례 조회’

산불 예방 철저 · 친절한 공직자 자세 강조



광양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례 조회를 열어 2025년 시정발전 유공 직원 8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현안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3월 7일부터 16일까지 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열렸다. 한파로 개화가 늦어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번 축제에서도 3無 축제(자동차, 일회용품, 바가지요금)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매돌이랜드 체험촌, 섬진강 요트 등 이색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다”며 근 한 달 동안 고생한 공직자들을 치하했다. 또한,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과 관련해 “30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산불 발생은 대부분 인재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그 원인을 뿌리 뽑는 예방 활동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공직자의 태도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각종 회의 사항상 강조하지만 친절한 자세는 공직자의 기본 의무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친절한 행동으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공직을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으로 생각하고 친절한 자세가 습관처럼 자연스레 몸에 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양=조준익 기자

곡성 북스타트 책꾸러미 선물 오는 8일부터 선착순 배부

곡성군은 지역 영유아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5 북스타트 책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북스타트코리아와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육아 지원 운동으로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하는 독서문화 서비스다. 지난해 23년과 24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 배부를 마쳤고 올해는 많은 아이들이 책꾸러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부 연령을 확대했다. 곡성군은 책 꾸러미를 △23년부터 25년생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21년과 22년생을 위한 ‘북스타트 플러스’, △19년생과 20년생을 위한 ‘북스타트 보물상자’ 총 3단계로 구성해 280명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각 꾸러미는 그림책 2권과, 예교백, 책 읽는 법 가이드북, 단계수별 작은 선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곡성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오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본을 지참하여 곡성어린이도서관과 육과도서관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현장 수령이 가능하다.

순천 ‘벚꽃아래 SNS 오프라인 이벤트’

오늘 동천 일원서 시민과 소통기회 마련

순천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3일 동천 장대공원 옆 동천에서 ‘벚꽃아래 SNS 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홍보실, 청년센터, 순천만국가정원 등 부서와 협력하여 각 SNS 채널을 홍보하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시민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순천시 유튜브 구독 시 순천시 굿즈 증정 ▲청년센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물렛 이벤트 참여 ▲순천만국가정원 인스타 팔로우 시 예쁜 꽃 한 송이와 포토 엽서를 제공할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현장에는

아름다운 동천 벚꽃을 배경으로 거울 포토존을 준비하여 젊은 세대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순천 소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감 있는 소통도 중요한 부분이다”며 “이번 이벤트를 시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순천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시는 카카오톡(순천시청), 페이스북(순천시), 네이버 밴드(순천시), 인스타그램(@suncheon), 유튜브(순천시), 네이버 블로그(순천시SNS), 당근마켓(순천시청) 등 7개의 S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8만 명이 구독하고 있다. /순천=조준익 기자

보성 ‘전남에서 살아보기’ 본격 추진

‘다향울림촌 · 한국천연염색 숲’ 2곳서 프로그램 운영

보성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보성군 귀농귀촌 희망자 7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촌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과 보성군이 협력해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실제 농촌에서 거주하며 일자리, 농촌생활, 지역공동체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군은 회천면 ‘다향울림촌’과 복내면 ‘한국천연염색 숲’ 등 총 2개소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향울림촌’ 참가자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입소를 시작해, 참가자들이 본격적으로 보성에서의 일상을 체험하고 있다. ‘한국천연염색 숲’은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운영

예정이며, 현재 대한민국 귀농귀촌 종합 플랫폼 ‘그린대로’에서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참가자들은 ▲마을 이장 및 주민들과의 만남, ▲지역 탐방, ▲귀농·귀촌 관련 일자리 체험, ▲보성군 주요 작물 재배 기술 및 수확물 관리 실습, ▲농기계 사용법 교육 등 실제 농촌 정착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 체험을 받게 된다. 특히, 단순 체험을 넘어, 보성군의 주요 산업인 차(茶), 농산물 재배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어, 보성의 정체성과 생활 기반을 생생히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개월간 마을에 체류하는 연수생에게는 재능기부 활동 참여 시 월 최대 30만 원의 연수비가 지원된다. /보성=장국도 기자

구례, 어르신 생활 돕는 마을활동가 간담회

구례군은 지난 1일에 2025년 1차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첫 번째 개최하는 간담회는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들과 읍·면 담당자 등 30여 명이 활동을 공유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는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위촉되어 읍면 사무소와 협의하여 경로당을 순회하며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

의 각종 행정 및 복지서비스 신청 접수 처리를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마을자원을 연계, 각종 고지서 납부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올해도 마을활동가분들의 소중한 활동들을 기대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얻은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구례군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광양,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가이드북 배부

광양시는 ‘광양시에 살면 모든 세대 혜택 가득, 2025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광양시민이 누릴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시책 위주로 안내 책자를 구성했다. 또한, 208개 시책을 △임신·출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공통 분야로 나누고 인생 로드맵 형식으로 소개함으로써 생애주기별 혜택을 더욱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우선 가이드북의 첫 번째 순서인 ‘임신·출산’ 분야에는 임신축하지원금 지원,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교통비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등 46개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어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어린이 체험프로그램비 지원, 고등학교 인터넷 수강료 지원, 고3학생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등 49개 사업을 소개했다. ‘청년’ 분야에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빈집포 활용 청년 사업가 지원 등 41개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중장년, 노년’ 분야에는 은퇴(예정)자를 위한 ‘평생 in 광양, 인생2막 설계 프로그램’ 운영,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복지교통카드 지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 37가지 사업을 수록했다. ‘공통’ 분야에서는 전일장려금 지급, 시민안전보험, 백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 백운산 치유의 숲 광양터넷 수강료 지원, 고3학생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등 49개 사업을 소개했다. ‘청년’ 분야에는 청년 주택자금

/광양=조준익 기자